태고종, 광화문서 영산재·국제수계법회 연다

11월 8일 광화문 육조광장서
1만여 대중 운집해 수계 진행
역량 총집결, 위상 변화 기대
"수계는 참회…보살도 이루길"
문화 공연, 체험활동 진행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0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법회' 봉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면서울시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를 봉행해온 태고종이 올해에는 국제수계법회를 더해 대규모 법석을 마련한다. 종단 역량을 총집결하는 이번 행사는 상진 스님 취임 이후 변화된 태고종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형 법석이 될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 봉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총무원 재경부원장 영범 스님과 태고전승문화사업단장 지허 스님이 배석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법석인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 광화문 육조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전국 태고종도와 일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석으로 진행된다. 이는 태고종이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수계법회는 국내외 선지식과 태고종도, 국내외 불자, 시민, 다문화 가족까지 폭넓게 참여한다. 법회에는 해동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참여하며 중국과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북미 등 7개국에서 방한한 스님들이 칠증사로 함께 한다.

상진 스님은 "대전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10만 관등법회, 독립기념관 개원 법회 등 30여 년 전에는 태고종이 한국불교 대규모 행사를 봉행해왔다"면서 "이번 영산재·국제수계법회는 종단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석의 원만 진행을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태고종도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허 스님은 "이번 법석은 총무원장 스님의 발원과 원력으로 시작됐다"면서 "행사를 통해 우리 종도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종사이운을 시작으로 본식, 수계법회, 영산재 시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사이운은 "다른 종단에서는 할 수 없는 전통의례로 여법하고 장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상진 스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종단 신도가 아니더라도 수계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불교문화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 상진 스님은 "참회하는 삶을 살아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계를 받으라"고 권선했다. 스님은 "수계는 참회"라며 "1년 동안 지은 업을 이번 수계법회에서 참회하고 하루만이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 무근이며 이는 태고종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간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이켰는데 의혹이 나올 만한 언동을 한 것이 없다. 명단 같은 것은 넘기지도 않았다"면서 "진 의원과 종단 명칭을 아무런 검증과 팩트체크도 없이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중앙종회 직능·백양사·직지사 후보자 확정


성화 스님 현민 스님 일감 스님 법주 스님 법공 스님 성진 스님 보륜 스님

선관위, 9월 29일 자격심사
후보자 전원 '이상 없음' 결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가 중앙종회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성화·현민·일감 스님(직능대표 선원분야)과 법주·법공·성진 스님(백양사), 보륜 스님(직지사)에 대해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월 29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회의실에서 제422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직능대표 선원분야 보궐선거는 성웅 스님의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 서울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후보 등록했다. 최종 선출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10월 16일 오후 1시 백양사에서 치러지는 제18교구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법주·법공·성진 스님에 대해서도 자격 이상 없음이 결정됐다. 만당 스님의 원적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완도 신흥사 주지 법주 스님과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이 출마해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직지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직지사 부주지 보륜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 묘장 스님이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보륜 스님은 이날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됨에 따라 10월 16일 열리는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은해사 종회의원에 세림 스님 2표차 당선

10월 2일…용주 스님 40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덕사 주지 세림 스님이 당선됐다.

세림 스님〈사진〉은 10월 2일 오후 1시 은해사에서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총 42표를 얻어 40표를 받은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됐다. 무효표는 3표.

앞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95명으로 확정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2명의 분담금 납부 등이 해결되면서 최종 97명으로 확정됐다. 이중 85명이 투표했다.

세림 스님은 불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원

9월 30일, 제13차 연석회의
종정감사–내년 예산안 심의
천주교 특별법 · 종교편향 논의

2026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19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9월 30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건접수 마감일은 10월 29일, 종책질의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다만 정기회가 열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기회에서는 불기2570(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비롯해 제235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호계위원 관련 종헌 개정안 2건과 관련 종법 개정안 2건, 사찰법 개정안,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또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 이어 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법규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종정감사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3건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독교 편향 발언에 대한 중앙종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불교계를 방문해 합장을 하지 않은 것은 종교 신념으로 차치하더라도, 다종교사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편향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교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는 장 대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민의힘에 보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27 천주교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선광 스님은 "강경 대응으로 철회된 줄 알았던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며 "내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불교계 전체가 민감하고 신속하게 저지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서명운동, 성명 발표 등 가시적인 활동을 통해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회 주요 현안과 장동혁 대표 관련 대응 및 천주교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02.768.8500 / www.jogyesa.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